

세종~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'고덕대교' 결정 촉구 건의안 (김혜지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498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2월 06일

발 의 자: 김혜지,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곽향기, 구미경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성준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창진, 문성호, 박영한, 박춘선, 박칠성, 박환희, 서상열, 송경택, 신동원, 유정인, 윤기섭, 이병윤, 이봉준, 이상욱, 이성배, 이종태, 이희원, 임규호, 장태용, 정지웅, 채수지, 최민규, 최유희, 최진혁, 허훈, 홍국표, 황유정, 황철규 의원(49명)

1. 주문

- 서울시의회는 「세종~포천 고속도로」 안성~구리 건설공사 14공구 구간에 건설 중인 횡단교량 명칭을 '고덕대교'로 정할 것을 촉구한다

2. 제안이유

- 지명 선정 기준의 절대적 원칙은 '지역 정체성'이다. 지명 결정 시 '고덕'이라는 고유지명보다 '지역안배' 명목을 앞세운 정치적 결정은 배제되어야 한다.

-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교량 건설업체가 착공 시점부터 ‘고덕대교’로 명명해 언론·서울시민·경기도민에게 각인된 상태다. 각인된 명칭 대신 다른 명칭으로 결정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정책 결정이다.
- 서울시의회는 명칭 심의·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지명심의위원회에 ‘고덕대교’로 건의·제안하며 원칙에 입각한 심의 의결을 요구한다.

3. 이송처

- 국회, 국토교통부, 국토지리정보원, 한국도로공사

「세종~포천 고속도로」 한강 횡단 교량 명칭 ‘고덕대교’ 결정 촉구 건의안

서울시의회는 「세종~포천 고속도로」 안성~구리 건설공사 14공구 구간에 건설 중인 횡단교량 명칭을 ‘고덕대교’로 정할 것을 촉구한다!

지명 선정 기준의 절대적 원칙은 ‘지역 정체성’이다. 지명 결정 시 ‘고덕’이라는 고유지명보다 ‘지역안배’ 명목을 앞세운 정치적 결정은 배제되어야 한다.

서울시의회는 ‘고덕대교’가 되어야 하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.

첫째, 교량 시작점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이며 IC 명칭이 ‘강동IC’로 내정됐다. 교량 명칭을 시작점 및 IC 명칭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‘고덕대교’가 되어야 한다.

둘째, 구리시가 주장하는 ‘구리대교’, 중재안이 될 수 있는 ‘구리고덕대교’로 명칭 결정 시 1.5km 내 위치한 ‘구리암사대교’와 중복돼 이용자들의 혼선이 불가피하다.

셋째,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교량 건설업체가 착공 시점부터 ‘고덕대교’로 명명해 언론·서울시민·경기도민에게 각인된 상태다. 각인된 명칭 대신 다른 명칭으로 결정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정책 결정이다.

넷째,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에서 세종~포천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납부해 국가 시책에 적극 협조했다.

서울시의회는 명칭 심의·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지명심의위원회에 ‘고덕대교’로 건의·제안하며 원칙에 입각한 심의 의결을 요구한다.

2023. 2. 6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